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말라기서 강해

옛 계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3:13-4:6)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도 않으며 폐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고, 하나님도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변치 않을 것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선지서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선지서가 앞부분에 있고 역대하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소라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빼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오게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빌 게이트 성경에도 말라기서를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4:6).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보훈 역시 심판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이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백성들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3:14).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꾸 변해야 합니다. 변한다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고 핑계하고 변명 하며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도 내리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달래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앗수르 군대를 동원하시어 남과 북을 멸절하기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머리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3:6)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떠난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심판의 방법과 때가 연기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바뀌어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과 입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3.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만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4:1).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같은 뜻으로 자기를 절대적이고 정당하며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니 이 교만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적용 된다

"너희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4:4).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도 않으며 폐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치 않고, 하나님도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변치 않을 것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저희에게 보내리니"(4:5).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는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의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빼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운 심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 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주승중 목사 강사로 -

11월17일(월) - 22일(토) 새벽 5시

50일간 계속되고 있는 2008 사명자대회의 클라이막스인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열린다.

매일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사명자새벽기도회 강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주승중 교수를 모신다.

주승중 목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손자로 숭실대, 장신대신대원, 미국 콜럼비아 신대원(Th. M.)과 보스턴 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전공하여 신학박사(Th. D.) 학위를 받았다.

교회설립 17주년 · 추수감사절
피택자 안수 및 취임 / 선교사 파송식

11월23일(주) - 찬양예배시간에

교회설립 17주년을 기하여 11월23일(주일)에는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예식과 교회설립17주년 감사 · 추수감사절 · 집사 60명, 권사 61명 임직식 · 선교사 파송식을 갖게 된다.

8분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 체코, 마다가스카르, 동아시아에 각각 파송한다.

호산나 학교 '제2회 호산나의 날' 축제

호산나학교에서는 2008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교회 7층, 9층에서 '제2회 호산나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알뜰바자회, 호산나가요제, 학부모님이 함께한 먹거리장터, 시화전, 게임존 및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주최한 본 학교 학생회는 알뜰바자회 및 먹거리장터 등에서 얻은 수입금을 서울교회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감사헌금으로 이종윤 담임 목사께 전달하였다.

신혼가정부 OPEN HOUSE !

11월9일(주) 오후 3시30분, 702호

지금, 신혼이신가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옛날 신혼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신혼가정은 정신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청년이 만나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 신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싱글일 때보다 열 배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혼의 정신없는 혼란에 적응하다보면, 우리가 가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영혼구원의 사명, 가정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명은 어느새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신혼가정이 아닌, 사명을 받은 신혼가정으로서의 우리 가정을 되돌아가기 위해, 신혼가정부는 11월9일(주일) 오후 3시30분, 702호에서 신혼가정 및 태신자와 함께하는 "신혼가정부 OPEN HOUSE"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신혼가정부는, 결혼 후 출산 전까지의 신혼가정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며 가정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명자대회를 맞아 준비한 이번 '신혼가정부 OPEN HOUSE'에서는, 교회 내에 아직 신혼가정부에 와보시지 않은 신혼가정들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태신자를 모시고 교회 내에 신혼가정부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혼 공동체에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의 목적을 찾는 곳, 11월9일, 오후 3시30분, 702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택자 전원 합격

지난 10월31일(금) 우리교회 피택 안수집사 60명, 피택권사 61명이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당회 고시 및 면접을 한 결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합격을 하였다.

100점 만점을 받은 이가 집사 11명, 권사 6명 그리고 집사 2명, 권사 7명을 제외하고 전원 90점 이상을 받았다.

13과목에서 주관식, 객관식 문제를 골고루 출제한 이번 시험은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나 피택자들의 열심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좋은 기둥들을 세우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들은 제출한 과제물과 전도실적 그리고 교육과정 출석이 확인되면 오는 11월 5일(수) 당회 허락을 받고 교회설립 17주년이 되는 11월23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임직을 한다.

노약자를 우대한다

우리교회 당회는 70세 이상 되신 성도들과 수요어린이 예배에 참여하는 유, 초등부 학생들에게 교회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식권 없이 자유롭게 취식하도록 결의하였다.

연말연시 교회행사 계획

- **11월02일(주일)** : 2009년도 각부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섬김위원 부서지원 마감
- **11월09일(주일)** : 추수감사 및 교회설립17주년 중고대청부 특별찬양(감사)
- **11월16일(주일)** : 추수감사 및 교회설립17주년 감사찬양(임마누엘)
- **11월21일(금)-22(토)** : 신임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금 저녁7시, 토 새벽6시15분, 저녁7시)
- **11월23일(주일)** : 추수감사절, 교회설립17주년 감사, 임직식, 선교사 파송
- **12월3일(수)** : 권사회 · 샬롬권사회 총회
- **12월5일(금)** : 새해 목회정책 발표회
- **12월7일(주)** : 2009년 서리집사, 교구일꾼 임명, 교구총회
- **12월14일(주일)** : 찬양대원 임명, 찬양대 총회, 찬양대원 헌신예배
- **12월21일(주일)** : 교사임명, 교사총회
- **12월28일(주일)** : 교회학교 졸업감사, 항존직 직분자 은퇴식(장로안식년), 전도시상, 주간성경공부 수료, 특별제직회
- **2009년 1월1일(목)** : 0시예배(송구영신)
- **1월5일(월)-10일(토)** : 청지기 수련회

쪽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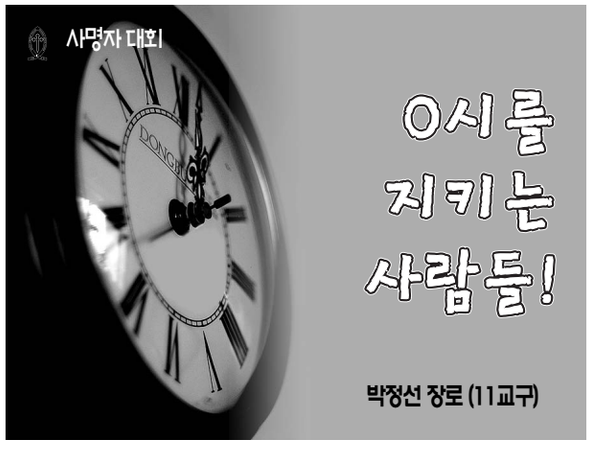
헌금과 세금은 다른 것이다

세금은 세무서장도 기쁘게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치는 것이다.

교구담당 목사님들 심방 시 예배 전에 기도제목과 함께 헌금을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쳤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예배가 끝난 후 헌금봉투를 내놓는 가정이 있어 이때 다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배 전에 바치라 한 것인데 이를 오해한 이들이 헌금을 강요한 것이라고 불평 아닌 원망(?)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세금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었다. 오해한 분 명심하시길!

사명자 대회



박정선 장로 (11교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 먼저 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정직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어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을 담대히 이겨 내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이나 그 어떤 환란도 없도록 하옵소서.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2008 사명자대회로 온 서울교회의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의 행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서울교회가 후끈 달궈지게 하시고 24시간 기도의 릴레이가 일초의 오차 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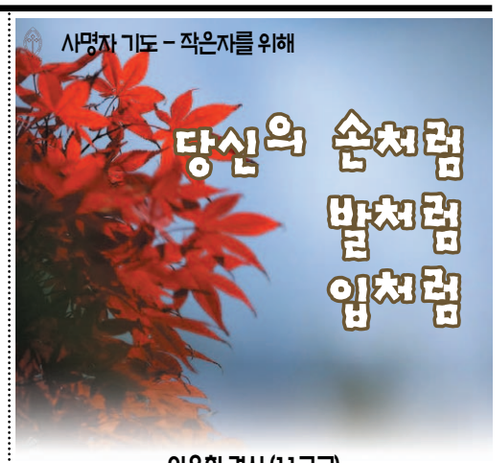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명하신 천국의 백성을 양성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땅 끝까지 만민에게 전도하는 전도의 횃불이 늘 타오르게 하옵소서. 힘없고 빈약한 자들을 위한 구제활동이 서울교회를 통해 뜻 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도 어둡고 험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 갈 때에 우리 서울교회의 하나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자 기도 – 작은자를 위해



이은희 권사 (11교구)

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여

당신의 밝은 진리 앞에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꺼내어 비춰 봅니다. '주님의 작은 자들을 대하는 내 모습 보시고 사명자로서 합당하다 하실까?' 자문해봅니다. 내 자비로우신 주님은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다시 품어 주시지만 당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떼어 놓으시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이들을 모으고 분별하시는 때에 부끄럽지 말라고 이 사명자의 시간을 주시고 당신은 내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이웃을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가까운 사람으로만 축소하면서 그것도 버겁다고 움츠리고 또 두려워하는 나에게도 당신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작은 자들을 보내십니다. 때론 몸이 아픈 자들의 모습으로, 때론 마음이 아픈 자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 외로운 자들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춥다고 우는 자들에게 옷 입혀 주라고, 갇혀서 답답하다고 울부짖는 자들을 찾아가라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통곡에 함께 우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과 같이 나도 이 작은 틀에서 벗어나 당신께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편한 것들과, 익숙한 것들을 떠나 불편하고 낯선 것들을 나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은 진실 앞에서 당신의 힘 의지하여 빛으로 걸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당신의 손처럼 나도 움츠리기 보다는 내어뻗는 당신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곳, 어두운 곳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가셨던 당신의 발처럼 나도 비록 종종걸음일망정 당신의 발이 되어 나아가기를 바래봅니다. 수많은 거절의 말과 거짓 속에서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다시 사랑의 말을 주셨던 당신의 입처럼 나도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사랑의 말을 연습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의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질 줄 알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임연주 (대학부)

2008년 한 해는 저에겐 물음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을 배웠기에,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은 누구신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하여 오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고백 해온 나에게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대체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인정할 수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성경을 외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내내, 이 말씀을 마치 암기과목 외우듯이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닌, 말씀의 의미를 내 몸 속에 차곡차곡 되새기게 되길 기도하며 외웠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덮인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 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이라는 말씀을 외우면서 옛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 꼭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응답하여 주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유아부

서울 아기사랑 작은 음악회

김유경 성도(12교구)

며칠 내내 비가 오다가 음악회 아침은 맑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아부에 도착해보니 이미 음악회를 준비하는 자모회 회원들, 다른 출연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5시가 되고 유아부 아이들의 찬양곡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일마다 찬양하던 곡을 부르자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곧 이어 유아부 황광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윤이 아빠가 번쩍 번쩍 빛나는 커다란 색소폰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부드럽고 멋진 음색이 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멋진 해윤이 아빠의 연주가 끝나고 시현이 엄마의 부드럽고 깊은 음색을 지닌 클라리넷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유나 엄마의 플루트연주는 귀엽고 톡톡 튀는 곡으로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두 목관악기, 클라리넷과 플루트 듀엣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유아부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 준비해온 탬버린과 함께 아이들은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준비된 음악회 순서를 모두 마치고 음악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찬양하며 홍순복 사모님의 기도로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아기사랑 작은 음악회'는 다른 음악회처럼 격식을 차린 음악회가 아닙니다. 또한 실력 있는 전공자들만이 연주하는 음악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 하나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른 음악회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마음 만큼은 그 어떤 음악회 못지않게 멋지고 아름답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울 아기사랑 작은 음악회가 회를 거듭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길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작은 밑알로!

제7회 서울강남노회 족구대회 우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족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 후 미도공원 족구장에 모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체력단련과 족구를 통한 선교(전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모임을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 출전하여 3회 우승을 하였고 선의의 경쟁과 매너 있는 플레이로 타 교회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내년의 승리를 바라보며 훈련할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전도위원회 산하 족구동호회로 정식 인정을 받아 명실상부한 서울교회 족구동호회로 거듭나 선교(전도) 현장에서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정회원이 15명이지만 앞으로 그 수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고 누구나 참여하기를 고대하며 족구를 통한 선교(전도)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작은 밑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족구 동호회 일동–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우리교회 주일 2부 예배에서 찬양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핸드벨 콰이어의 찬양으로 드려진다. 다른 어느 찬양대와 달리 인성을 제외한 핸드벨 앙상블로 이루어져 맑고 투명한 그러나 때로는 신비로운 소리로 경건한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오늘은 Thine is the Glory (M.R.Tucker 작곡) 외에 3 곡으로 찬양 드리고 김경숙 선생의 지휘로 13명의 단원이 함께 찬양 드린다.

제10회 가을 화요 정오 음악회(11월 4일)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오르간 듀오 연주회

이번 주 화요정오음악회는 오르간 듀오 연주회로 열린다. 오르간: 강혜미 선생(미주 고려신학교 교수), 오르간: 이성심 선생(서울교회오르가니스트)이 연주하며, 이날 연주할 곡은 좀 크게 울려라(J.B. Calkin)외 6곡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월1일(토) 칼빈탄생50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소집했다. 4일(화) 서울강남노회 43회 정기회에 참여한다. 6일(목) 군선교연합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7일(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동문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43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원과 장로총대(오정수 정병무 김대호 김영준 이영기 하영수 서문석 민순구 홍성주 이관규 장로)가 11월4일(화) 서울강남노회 정기회에 참여한다.

■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 잔치** : 6일(목) 오전 10시30분, 21회 찬양 잔치가 우리 교회당에서 강남노회 산하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 이사: (10교구)류중관 집사, 진선자 권사,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119동 2102호

■ **주간 식당 봉사:** 루디아전도회(11.2) 마리아전도회(11.9일)

■ **금주의 식사 :** 김재준, 김도준, 김경택, 김기연 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 5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